울산시,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추진

울산시는 동북아 오일허브에 국제석유거래소 설립함으로써 금융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7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울산발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3개 기관 컨소시엄에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에 따른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은 2011년 2월까지 세계 주요 오일허브 연관산업 조사, 울산지역 산업구조 분석,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성장모델 설정, 장단기 연관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 박맹우 시장이 주문한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등 금융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은 울산항 일대에 2800만배럴의 석유 저장시설과 함께 석유금융거래시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1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2년 착공해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업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0/5/3>